

# 현대글로벌비스 車화물선 美동부해안서 전도

화재·불안정 진입 어려움  
한국인 선원 4명 구조 난항  
선원 20명은 대피·구조



현대글로벌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 골드레이호가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항 인근 바다에서 전도돼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 /연합뉴스

현대글로벌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PCC)이 8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미국 동부해안에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선박에는 모두 24명이 승선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은 긴급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은 한국민이라고 한국 외교당국은 밝혔다. 미 해안경비대(USCG)를 중심으로 합동구조대가 사고 선박에 접근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차량 운반선 골드레이(Golden Ray) 호(號)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현지시간)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의 내항에서 외항으로 현지 도선사에 의해 운항하던 중 선체가 옆으로 기울었다.

해안경비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략 새벽 2시께, 찰스턴의 선박감시대원들이 글린카운티 911 파견 대원으로부터 골드레이호가 전복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감시대원은 긴급 해상정보방송을 내보내고 구조인력들을 배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골드레이호는 브런즈윅 항구로부터 1.6km 거리의 수심 11m 해상에서 좌현으로 80도기량 선체가 기울

어졌다. 선박정보업체 '베슬 파인더'에 따르면 브런즈윅항에서 출항한 골드레이호는 9일 오후 7시께 불티모어 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불티모어항은 브런즈윅항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기준 1천100km가량 떨어져 있다. 사고 선박은 전도된 채 침몰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 배는 2017년 건조된 7만1178t급 선박으로, 마셜제도 국적이다. 전장 199.9m, 전폭 35.4m 크기로 차량 7400여대를 수송할 수 있다. 사고 당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차량 4000여대를 선적했다. 현재 선적된 차량의 선박 외 유출 등의 물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선박에 승선한 24명 가운데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20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구조된 인원은 한국민 6명, 필리핀인 13명, 미국 도선사 1명 등이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미 해안경비대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4명은 모두 한국민으로, 선박 기관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해안경비대는 현재 사고선박 기관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4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담당 영사를 사고 현장에 급파

했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 선원 구조와 사고 경위 파악 및 한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이나 추가적인 구조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영준 주애틀랜타 총영사는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해안경비대는 보도자료에서 브런즈윅 긴급대응 보트, MH-65 돌핀 헬리콥터, 찰스턴지부, 사바나 해상 안전팀, 구조 엔지니어링대응팀(SERT)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197〉 조광윤

조광윤(趙國胤, 927-976)은 하북성 탁주 고양현 출신으로 복송의 초대 황제다. 묘호는 태조로, 당 왕조 이후 새로운 통일 왕조를 수립했다.

부친은 조홍은으로 오대 십국때 후당의 금군 장교다. 형제들이 요절해 사실상 장남 역할을 수행했다. 940년 군에 들어가 후한의 장군 광위의 막료가 되었다. 951년 광위가 후주(後周)를 건국하자 개국 공신이 되었다. 954년 광위가 사망하자 양자 시영이 2대 황제로 즉위해 조광윤을 중용했다. 교태위 전절도감, 금군총장령을 역임했다. 세종 시영이 959년 37세로 죽자 후계자인 공제 시승훈은 7세에 불과했다. 동생 조광의와 참모 조보 등이 쿠데타를 모의했다. 960년 정월 북한이 침략하자 이를 막기 위해 수도 개봉 주변의 진

을 채택했다. 쉬운 것을 먼저하고 어려운 것을 나중에 하는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전략이다. 화가 유준은 태조가 눈 오는 밤에 황궁을 빠져나와 조보의 집을 방문하는 설야빙보도(雪夜訪普圖)를 생동감있게 묘사했다. 실제로 전국의 통일은 태조대인 979년에 완성되었다. 965년 사천의 후촉 정병이 추진되었다. 971년 광동성과 광서성의 남한이 975년에는 남경을 근거지를 둔 남당이 정벌되었다.

절도사의 권한을 서서히 축소하였다. 절도사 부대 중 우수한 자를 중앙으로 끌어올렸다. 진장이 담당할 경찰 업무를 중앙에서 현위(縣尉)를 직접 파견해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절도사가 한 곳에 오래 재임하지 못하도록 해 지방의 유력자가 되는 것을 방지했다. 중앙에서 통판(通判)을 보내 전국 업무를 담당하였고 전문사를 두

### 당 이후 첫 통일 왕조, 복송 초대 황제

교에 속박했는데 군의 간부들이 칼을 들고 마당에서 "원컨대 태위를 추대하여 천자로 삼고자 합니다"고 외쳤다. 간밤의 술기운이 아직 남은 광윤에게 황포(黃袍)를 걸쳐 주었다. 공제의 선양을 받아 황제가 되었다. 송의 태조다. 광윤의 즉위 사실을 접한 화산의 은사 진박은 "천하는 이제부터 안정된다"고 예언했다고 한다.

태조에게 시급한 것은 중앙집권의 강화와 전국의 통일이었다. 중앙의 금군(禁軍)을 강화하고 각 지방의 지휘관들로부터 병권을 회수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961년 8월 태조는 주요 장군들을 주연에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병권을 내놓고 지방의 절도사로 갈 것을 제안했고, 장군들은 황제의 제안을 수용했다. "술잔을 돌려 병권을 해제했다"는 유명한 배주석병권(杯酒釋兵權)의 일화다. 황제 직속의 금군 강화도 불가피했다. 그러나 중앙군의 강대한 지휘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전전도점점과 부도 점검을 폐지했다. 재위기간 중 군대 규모는 계속 늘어났다. 970년대 22만명에서 치세 말에는 37만8000명으로 늘어났다. 북방의 영토 안정과 남방의 왕조 통합을 위해 불가피했다.

재상 조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쪽을 먼저 공략하고 북쪽은 나중에 공격하는 선남후북(先南後北)의 통일정책

이 그간 절도사의 권한이었던 조세와 염세 등 징세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당의 절도사가 사실상 '총독'의 권한을 휘두른 것을 정상화 시킨 조치라 할 수 있다.

오대의 무인정치를 문인정치로 바꾼 것도 커다란 업적이었다. 경찰업무가 진장에서 현위로 넘어가고 전문사, 통판 등의 직책이 생기면서 직업관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과거합격자 즉 진사(進士) 출신이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했다. 진사 출신이 아니면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태조때 350명이 급제했고 태종때 진사제도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정부 조직은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으로 구성되었고 독립적인 추밀원도 중서성에 맞먹는 권한을 가졌다.

976년 50세의 나이로 급서했다. 태조가 동생 조광의와 밀담을 나눈 직후 사망했다. 동생이 형을 도끼로 살해했다는 축영부성(鄒英弔聲)의 고사가 여가서 유래했다. 그러나 모친 두태후 임씨는 계속 늘어났다. 970년대 22만명에서 치세 말에는 37만8000명으로 늘어났다. 북방의 영토 안정과 남방의 왕조 통합을 위해 불가피했다. 재상 조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쪽을 먼저 공략하고 북쪽은 나중에 공격하는 선남후북(先南後北)의 통일정책

### 아베, 한국에 외교 무례 저지른 고노 외무상, 방위상에 기용 검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 위해 한국에 대해 '결례 외교'를 편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신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개각의 하마평을 다룬 기사에서 아베 총리가 고노 외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인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에 일본의 입장을 엄격하게 제시한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무상에서 퇴임하더라도 방위상에 기용함으로써 한국 측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통신은 이어 "고노 외무상이 방위상에 취임하면 한일 관계의 악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미일 3개국의 안전보장 연대를 유지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이 언급한 '잘못된 메시지'는 한

국에 대한 결례 외교의 책임을 물어 고노 외무상을 '경질'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7월 19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자리에서 남 대사가 발언하는 중간에 "잠깐 기다려주세요"라며 말을 끊고 면박을 줬던 국 정부로부터 결례라는 항의를 받았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장관급 인사로서 격에 맞지 않게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으며,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이 역사를 바꿔주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면서 '적반하장' 격의 막말을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을 향해) 얼굴에 진흙 칠을 하는 것 같은 일만 과거해 했다"며 고노 외무상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태풍이 밀어낸 '경축 행사' 北, 정권수립 71주년 조용히 치러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1주년(9·9절)을 큰 행사 없이 조용히 치르는 분위기다. 태풍 '링링'이 남기고 간 피해를 복구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데다 올해가 정주년(5, 10년 단위로 겪어지는 해)이 아니어서 관련 행사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북한 매체들은 9·9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일제히 내보냈지만, 관련 행사는 보도하지 않았다. 매체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우호국가 정상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축전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도 전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48년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9월 9일을 정권수립일

로 기념하고 있다. 정주년이었던 지난해 70주년에는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고위급 외빈을 대거 초청하고 열병식과 군중시위, 집단체조 등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

더욱이 올해는 9·9절 직전에 북한을 할퀴고 간 태풍 때문에 크게 경축할 상황이 아니다. 지난 7일 북한을 관통한 제13호 태풍 링링은 5명 사망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내고 여의도 면적(2.9km)의 157배에 달하는 농경지에 피해를 줬다. 피해 집계가 끝나면 피해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심각성을 인식한 김정은 위원장은 태풍 상륙 전인 6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해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으며, 당과 정부 간부들도 피해 현장에 총출동해 복구작업을 지휘했다. /연합뉴스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가치 높음.
- 토지** ▶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 광주 광산구 삼가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높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추천 물건

- 근린시설** ▶ 전남 목포시 명륜동 토지 1131㎡(342.128평) 건물 : 7617.71㎡(2304.367평) 지하3층 지상8층 **감정가 : 54억6천5백만원 최저가 : (70%) 38억2천5백5십만원**
- 근린주택** ▶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토지 : 224㎡(67.8평) 건물 : 264.27㎡(79.9평) 지상2층 **감정가 : 4억6천2백만원 최저가 : (70%) 3억2천3백5십만원**
- 다가구(원룸)** ▶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운리 토지 : 1582㎡(478.6평) 건물 : 298.92㎡(90.4평) 창고, 공장, 근린시설 적합 **감정가 : 3억6천1백만원 최저가 : (56%) 2억 2백2십만원**
- 다가구(원룸)** ▶ 광주 북구 풍향동 767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70%) 4억7천4백만원**
- 주택** ▶ 광주 남구 백운동 토지 : 225.5㎡(68.214평) 건물 : 243.77㎡(73.74평) **감정가 : 3억1백3십만원 최저가 : (70%) 2억1천9십만원**
- 아파트** ▶ 광주 서구 금호동 쌍용에가 55평형 **감정가 : 8억3천5백만원 최저가 : (70%) 5억8천4백5십만원**
- 아파트** ▶ 광주 서구 풍암동 에스케이뷰 56평형 **감정가 : 8억2천만원 최저가 : (70%) 5억7천4백만원**
- 오피스텔** ▶ 광주 서구 치평동 로잔티움파크 78평형 **감정가 : 4억4천1백만원 최저가 : (70%) 3억 8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